

Field Voice >>>



잘 가라! 2009년...희망의 해가 다시 떠오른다

올해 전력산업은 알찬 결실과 더불어 아쉬움을 남기고 저물어 간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아보면 '다사다난' 하지 않았던 해는 없을 것이다. '제3의 산업혁명'이라는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도입이 본격화됐으며,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이 발표됐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어느 해보다 활발했던 2009년이였다. 또한 공기업 선진화, 한전의 긴축경영, 전력산업구조개편 재통합 논란 등으로 관련업계의 시름이 한층 가중됐으며, 송전탑 건설 공사와 신재생에너지 입지선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다.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반면 원자력 도입 반세기만에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 건설사업을 수주해 '원자력 첫 수출'의 쾌거를 달성했고, 풍력개발에 뛰어들지 꼭 10년 만에 순수 토종으로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등 전력역사에 큰 획을 그치게 됐다. 전력산업은 지난 110여 년 동안 세계에서도 드물게 고도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왔으며, 이는 전적으로 선배 전력인들의 전력분야 개척에 대한 열의와 사명감에 기인했다. 이제는 다가올 100년 동안 전력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다음 떠오르는 해는 희망과 행운이 가득한 2010·경인년(庚寅年)...힘차게 솟아오르는 '새 아침 태양' 같이 전력업계가 우리 사회에서 우뚝서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보안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

“보안은 고려되어야 한다. 해외 전력망에서 사이버 침해사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군 관련 시스템 구축 이후 보안장비를 도입하려다 보니 문제가 커진 경우가 있었다. 보안에 거의 10배 이상을 더 투자해야 했다. 보안문제는 처음부터, 설계에서부터의 접근이 필요하다. 보안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보안은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다”

12월 16일 최경환 지경부 장관, 김쌍수 한전 사장, 오세현 SK텔레콤 사장 등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10개 공모 컨소시엄 대표와 관련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협약식'에 앞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사업성과 제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손영동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의 일성이다. 최근 모 방송국에서는 올해 발생했던 7.7 DDoS사건의 특집을 다루면서 최근의 사이버 테러 위협이 전력, 철도, 교통, 가스 등과 같은 기간산업 분야 제어망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예로 들어가며 경고한 바 있다. 국가간 전쟁에서도 지상전, 해전, 공중전에 이어 제4의 전쟁 사이버전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공격은 주로 금융, 에너지 같은 국가 기반시설 그중에서도 모든 산업에 필수불가결한 전력분야에 대한 공격 발생 우려가 가장 높다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스마트그리드와 관련, 해외에서는 해킹 등 보안문제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 최고, 최대의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운영과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로서의 위상도 중요하다. 하지만 10명이 지켜도 1명의 도둑을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완벽에 완벽을 기하는 철저한 보안 대책 수립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